

# 각국의 예비군 제도 시사점과 우리의 혁신방향

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정철우

2024.4.1.

# 목차

**01** 각국의 예비군 제도 시사점

**02** 우리의 혁신 방향

# 01

## 각국의 예비군 제도 시사점

# 본 발제에서 '예비군 제도'의 범위



# 징병제 vs. 모병제

## ❖ 병역제도 선택의 영향요소

- 외부위협 수준, 인구 규모, 경제 수준, 정치체제, 국민의 가치관, 역사적 경험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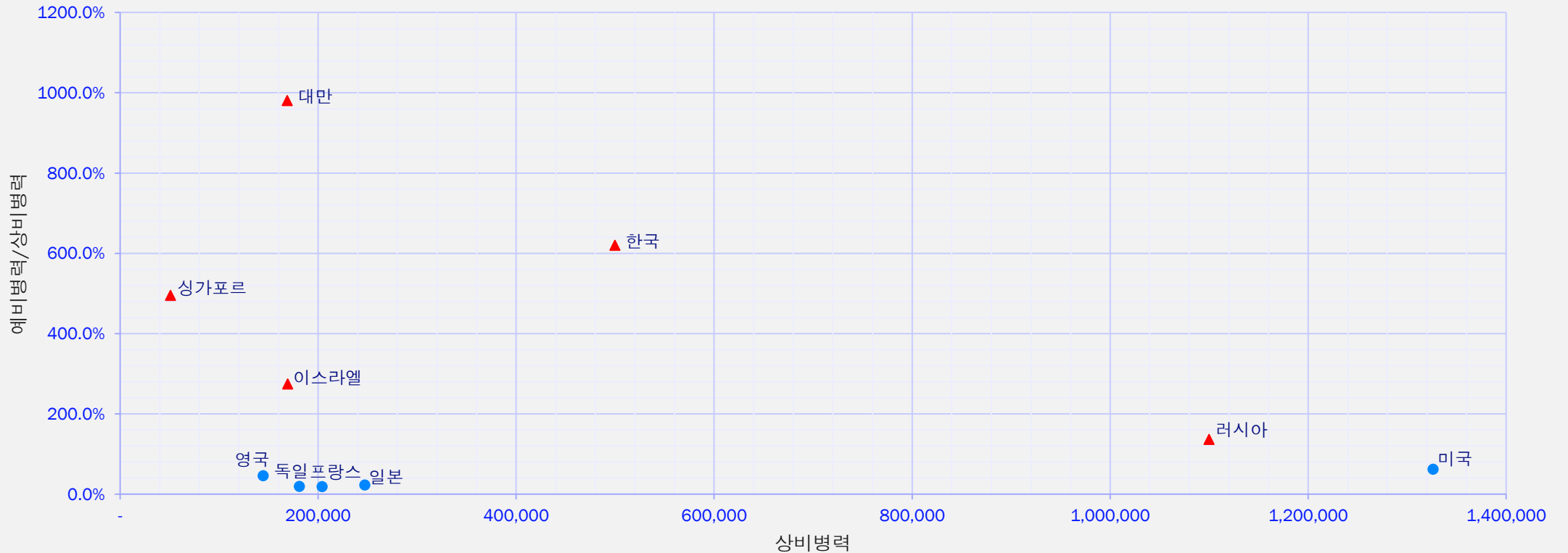
## ❖ 징병제의 특징

- 민주사회에서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에 상응하는 급부로서 인식되는 병역(兵役)
- 전쟁이나 국가 안보 위협 발생 시 군대를 급격하게 확장하는 데 효과적. **예비전력 확보에 유리**
- (pro) 병력자원의 양적 확보에 유리 vs. (cons) 국가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배분

## ❖ 모병제의 특징

- 인간의 자발성과 동기유발, 고도산업사회의 분업원칙에 기초한 제도
- 전문화된 군대 유지 가능하고,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 존중에 기여
- (pro)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vs. (cons) 병력자원의 양적 확보에 어려움

# 징병제/모병제 국가별 상비병력 대비 예비병력 비율 비교(2023년 기준)



<출처> <https://milbalplus.iiss.org> (검색일자: 2024. 3. 13)

👉 징병제 국가들이 모병제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예비병력/상비병력 비율을 보임

# 예비군 복무, 역(役) or 업(業)?

## ❖ 징병제 하 예비군 복무

- 현역 복무와 같이 예비군 복무도 일정 기간 병역(兵役)의 의무로 복무

국가	예비군 복무기간		비고
이스라엘	제1예비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남: 21~39세</li> <li>• 여: 20~34세</li> </ul>	현역 복무를 필한 자
	제2예비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남: 40~44세</li> <li>• 여: 35~38세</li> </ul>	제1예비역 복무를 필한 자
싱가포르	전역 후 10년		중요 보직자는 13년

## ❖ 모병제 하 예비군 복무

- 일반적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인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계약에 따라 예비군 복무
- 미국은 18~35세 군 지원 가능하고, 군 지원 시 **현역 복무기간과 예비역 복무기간을 합쳐 8년 간 복무**하며, 계급에 상관없이 **60세까지 복무 가능**
- 프랑스 작전예비군은 **현역복무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**, 또는 **순수 민간자원병** 중에서 지원·선발하고 **2년 계약 복무 후 3~5년 연장 가능**

# 예비군 훈련 기간 및 내용

국가		훈련일수		훈련 내용
징병제	이스라엘	병	3년 주기 54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년 주기 1회 25일 이상 작전배치</li> <li>매년 동원훈련 5일</li> <li>특기훈련 별도(간부교육, 진급보수교육 등)</li> </ul>
		부사관	3년 주기 70일	
		장교	3년 주기 84일	
	싱가포르	연 40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~4년 차(강화 단계): 개인 및 팀웍 위주 기본전술 훈련</li> <li>5~7년 차(정예화 단계): 부대전술 훈련</li> <li>8~10년 차(수준유지 단계): 통합작전 수행능력 훈련</li> </ul>
모병제	미국	AGR (Active Guard & Reserve: 상근예비군)	상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역·예비군 부대, 예비군지원조직에서 상근(full time)</li> </ul>
		TPU (Troop Program Unit: 부대편성예비군)	연 38일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소 48개 훈련과제 시행</li> <li>월 1회 주말훈련 + 연간 1회 2주간(summer camp) 훈련</li> </ul>
		IMA (Individual Mobilization Augmentee: 개별동원예비군)	연 14일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~48개 훈련과제 시행</li> </ul>
	독일	연 30일 이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대예비군 및 지역예비군 대상 군사교육 및 훈련</li> </ul>

# 예비군 복지

국가		급여/수당	보험/재해보상	세제혜택	기타
징병제	이스라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원 시, 개인별 직장 급여 수준 보상 보장</li> <li>• 전투참가 병사에 대해 특별지원 기금 지원</li> <li>• 예비군 복무 중인 개인기업가에 추가보상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고·사망자에 대한 보상</li> <li>• 전국민이 매월 소득의 1.5~5% 수준의 보험금을 세금으로 납입하여 예비군 보상재원 마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 평균 1,000N.I.S(한화 약 34만 원) 세금감면 혜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부분의 식당, 가게에서 10~30% 할인 가능한 B'Hatsdaa 카드 발급</li> </ul>
	싱가포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인별 직장 급여 수준 보상 보장</li> <li>• 위험수당(다이빙, 강하 등) 추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비군 및 배우자에 대한 보험(사망 및 중대 장애에 대한 보상, 70세까지) 가입</li> <li>• 보험료 추가 납부 시 자녀(아들 18세까지, 딸 25세까지) 가입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간 1,500싱 달러(한화 약 130만 원), 핵심 직위자의 경우 2,000싱 달러까지 가능</li> <li>• 예비군의 부모 및 배우자는 연간 750싱 달러(한화 약 65만 원)까지 감면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E-learning 수강 지원(학술, 자격증, 기술관련 강의 등)</li> <li>• 훈련기간 발생한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(치과 포함)</li> <li>• 군 운영 국내/외 리조트 이용 등</li> </ul>
모병제	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역과 동일수준 급여(주말 수당은 2배) 및 복무연장 상여금 지급</li> <li>• 위험수당(다이빙 수당 등), 항공경력수당, 외국어 수당 등 추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비군 및 가족 대상 의료·생명보험 혜택 수여, 치과 진료시 혜택 부여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퇴직연금 반영·지급(현역·예비역 합산 20년 복무 시, 60세 이후 지급)</li> <li>•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</li> </ul>

4.예비군 사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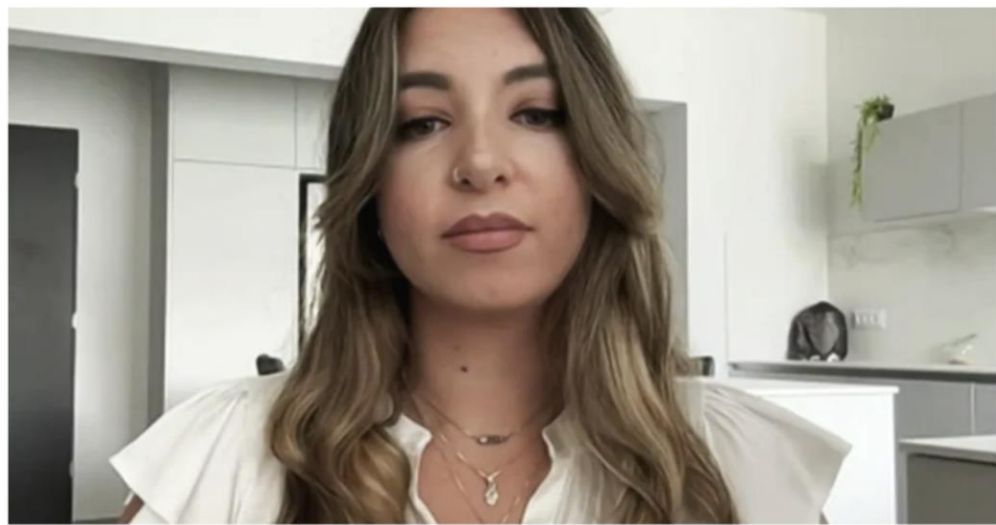
❖ 이스라엘 예비군



▲ 하마스 공격 이후 예비군에 합류하려 공항마다 봄비는 젊은이들



▲ 예비군 동원 대상이 아님에도 두 아들과 함께 군 복무를 자원한 노엄 라니르(56)



▲ 이스라엘-호주 이중국적자인 구트먼(28, 사진)은 호주에 거주하다가 이스라엘 당국의 동원령이 내려지자 곧바로 고국으로 향했다

❖ 미 예비군



▲ Service members from several units at Bagram Airfield, Afghanistan, pay their respects during a fallen comrade ceremony held in honor of six Airmen Dec. 23, 2015.



▲ Army Reserve soldier is honored at Chicago Cubs Mother's Day game.

# 각국 예비군 제도의 시사점

## ❖ 예비군 복무

- 징병제 국가는 예비군 복무를 兵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의 예비전력 확보에 유리
- 모병제 국가는 상비군 대비 적은 규모로 일종의 職業으로서의 예비군을 운용

## ❖ 예비군 훈련

- 이스라엘, 미국, 싱가포르 등은 예비군들에게 매년 상당 시간 실전적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

## ❖ 예비군 복지

- 일반적으로 징병제 국가는 개인별 직장 급여 수준으로, 모병제 국가는 현역과 동일 수준으로 수당 지급
- 그 외, 보험, 세금, 연금 등의 다양한 혜택 부여

## ❖ 예비군 사기

- 예비군으로서 국가를 위해 참전하는 데 대한 자긍심 공유
- 공히 예비군에 대한 존경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

# 02

## 우리의 혁신 방향

# 미래 우리 예비군 제도의 지향

“ 役으로서와 業으로서의 예비군 복무를 병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거의 전무함. 이 점에서 기존 예비군 제도(役)의 틀을 유지하면서 비상근 예비군제도(業)를 도입한 것은 ‘한국식 예비군 제도’라고 평가할 수 있음. 앞으로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은 ‘한국식 예비군 제도’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있다고 할 것임. ”

1968

역(役)으로서의 예비군 복무(54년)

역(役) + 업(業)으로서의 예비군 복무(10년)

2014 現在

2040

\* 2014년 간부예비군 비상근복무 제도 시행  
2021년 비상근 예비군제도 법제화

# 한국식 예비군 제도 혁신 방향 (1/2)

## ❖ 業으로서의 비상근 예비군 확대 운용

- 비상근 예비군 운용직위 식별 및 규모 확대: 단기 3~4만 명 수준(장비운용 직위, 동원보충대대 지휘관 직위 등)
- 비상근 예비군 활용가능 기간 확대

ex) 예비역 정년 확대(미 예비군 정년 60세), 예비군 진급제도 확대, 퇴역에게도 비상근 예비군 지원 허용

- 현역 19.5년 복무 후 전역 시 퇴역 선택 가능하고, 예비역을 선택하더라도 연령정년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임

성별	년도	20년 이상 복무		20년 미만 복무	
		예비역	퇴역	예비역	퇴역
남성	2021	36.4%	63.6%	97.6%	2.4%
	2022	40.9%	59.1%	97.4%	2.6%
	2023	44.9%	55.1%	97.1%	2.9%
여성	2021	37.7%	62.3%	14.3%	85.7%
	2022	30.0%	70.0%	17.7%	82.3%
	2023	35.5%	64.5%	15.8%	84.2%

\*출처: 국방부 동원기획과 내부자료(2024. 3. 21)

- 비상근 예비군 지원가능 대상이 예비역이므로 획득이 어렵고, 현역 정년연장에 따라 획득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
- 비상근 예비군 훈련 및 복무 등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
  - 현재는 훈련 미참가나 결근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흡

# 한국식 예비군 제도 혁신 방향 (2/2)

## ❖ 役으로서의 예비군 전력 강화

-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예비군과 같이 훈련일수 확대 및 훈련내용 개선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.  
주어진 기간 내 최대한의 훈련 효과 추구 필요: 현역 복무 시 축적된 역량을 예비군 복무로 연계 강화  
- 예비군 특기를 도입하고, 이에 따라 병력동원지정 및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
- 전시 병력동원의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병력동원 체계 개선 필요(러-우 전쟁, 이-하마스 전쟁의 교훈)
- 예비군 정신전력 교육 강화

## ❖ 예비군 복지의 획기적 개선

- 예비군에 대한 훈련수당 현실화  
ex) 개인별 직장 급여수준(무직은 최저임금 수준) 또는 현역 계급의 급여수준 연계
- 보험, 세금, 연금(특히, 비상근 예비군 복무 기간 반영) 등의 다양한 혜택 고려
-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 
ex) 유튜브, 블로그, 프로야구 시구 등
- 예비전력 예산 확보

각국의예비군 제도 시사점과 우리의 혁신방향

# Thank you

한국국방연구원 정철우

[jchuroo@kida.re.kr](mailto:jchuroo@kida.re.kr)

2024.4.1.